

2020년 2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국감정가협회(AAA)와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운영. 해당 프로그램 참가 결과물로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주제의 참가자 결과보고서 참조하여, '2020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프로그램(시가감정) 운영지원 사업' 구성을 권장함

□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 양성 프로그램
(영문명: KAMS-AAA program: Train the Trainer)
- 운영장소 : 미국 뉴욕
- 운영기간 : 2020.2.10.(월) ~ 2.14.(금) (총 5일, 35시간 교육)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은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을 위한 강사 및 교육과정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외의 인력 양성 프로세스, 사례 및 실제적인 강사 교육을 통해 국내에 다양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실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 프로그램 내용
 - 목적: 사전조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양성 방안 마련 (강의 로드맵 및 계획안, 국내 프로그램 운영안 등)
 - 주제 및 구성: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개념, 방법론, 숙련된 시가감정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이해, 감정인의 윤리와 역량 등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
 - 사업종료 후 프로그램 참여 내용과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주제 결과보고서를 필수 제출 하며, 이는 2020년 사업에 활용 가능

붙임.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붙임 1.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주제	미국 시가감정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국내시가감평가 육성방안	작성자	김민정
----	----------------------------------	-----	-----

I. 개요

미국은 1930년부터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거쳐 1980년대 부동산 부실평가와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로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치닫자 8곳의 북미지역의 감정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감정평가의 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결실은 1987년 비영리단체인 미국감정평가재단(TAF, The Appraisal Foundation) 설립을 시작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감정평가재단이 만든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이하 USPAP)은 1989년 초 미국 국회에서 인가 받고 같은 해 8월 제정된 금융기구 개혁, 회복, 규제강화법 (FIRREA,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에서 USPAP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관련된 거래에 본 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현재 USPAP은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표준 체계로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도 USPAP을 준수한 감정 보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미국 정부 기구들이 USPAP을 행정 규정 및 지침으로 요구한 덕분에 감정평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인 감정평가재단은 이사회 (BOT, Board of Trustees), 감정가 자격위원회 (AQB, Appraisal Qualifications Board, 이하 AQB),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위원회 (ASB, Appraisal Standards Board, 이하 ASB)를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다.¹ AQB에서는 감정가의 자격을 검열하는 부서로, 지속적인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여 감정가의 자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으며, ASB에서는 USPAP의 주관/출간하는 부서로, 변화하는 시장 현황에 맞게 2년에 한번씩 USPAP을 개정하고 새로운 사안들을 적용해 사용자로 하여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미술품 시가감정의 국가 공인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감정시스템이 자생적으로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한 데에는 이렇게 자기 혁신을 거듭하고 자기 계발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0-2021 EDITION		TABLE OF CONTENTS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FOREWORD		i
TABLE OF CONTENTS		v
PREAMBLE		1
DEFINITIONS		3
ETHICS RULE		7
RECORD KEEPING RULE		10
COMPETENCY RULE		11
SCOPE OF WORK RULE		13
JURISDICTIONAL EXCEPTION RULE		15
STANDARDS AND STANDARD RULES		
STANDARD 1: RE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		16
STANDARD 2: REAL PROPERTY APPRAISAL REPORTING		20
STANDARD 3: APPRAISAL REVIEW DEVELOPMENT		25
STANDARD 4: APPRAISAL REVIEW REPORTING		29
STANDARD 5: MASS APPRAISAL DEVELOPMENT		32
STANDARD 6: MASS APPRAISAL REPORTING		38
STANDARD 7: PERSON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		42
STANDARD 8: PERSONAL PROPERTY APPRAISAL REPORTING		46
STANDARD 9: BUSINESS APPRAISAL DEVELOPMENT		51
STANDARD 10: BUSINESS APPRAISAL REPORTING		54
STATEMENTS ON APPRAISAL STANDARDS		
Statements on Appraisal Standards (SMT) are authorized by the by-laws of The Appraisal Foundation and are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clarification, interpretation, explanation, or elaboration of the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 Statements have the full weight of a Standards Rule and can be adopted by the Appraisal Standards Board only after exposure and comment. There are currently no active Statements.		

[그림 1. USPAP표지], [그림 2. USPAP 목차]

반면 한국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감정학의 일환으로 부상해 왔다. 미국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미술계의 실정에서, 미술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그 의도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거나 거래실정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미술시장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감정평가 기준의 틀을 만들고 서서히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필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미국감정가협회 (AAA, Appraisers

¹ 감정평가재단의 홈페이지에서 USPAP과 ABS, AQB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 할 수 있다. <https://www.appraisalfoundation.org/>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AAA)의 5일간의 프로그램을 참가한 경험으로 한국 미술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자료를 작성 하였다. 본론의 Ⅱ. 이론 및 방법론 (Theory and Methodology)은 2, 3일차의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Ⅲ. 자료 조사 및 분석 (Collect and analysis data)은 4일차 '시가감정 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IV.시가감정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안은 5일간의 프로그램 내용과 추가 인터뷰 내용을 전반적으로 녹여내어 고안해보았다.

Ⅱ. 시가감정 이론 및 방법론²

[표 1]

1. 사용 목적	2. 가치 유형	3. 시장 위치	4. 접근법	5. 유효 일자
보험 (Insurance)	소매대체가치 (RRV)	소매 (Retail)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비용접근법	미술품 조사 시점
손상/손실 (Damage/Loss)				손상/손실이 발생한 시점 또는 조사 시점
유산/상속 (Estate)	공정시장가치 (FMV)	주류/비주류 경매 (Major/Minor Auction)	거래사례 비교법	사망일 또는 사망일 6 개월 이내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매 또는 주류/비주류 경매		기부/기증 60 일 이전 또는 기부/기증한 날짜
공평분배 (Equitable Distribution)				결별일 또는 소유권 이전 시점
재판매/재산목록/자산운용 (Resale/Inventory/Estate Planning)	공정시장가치 또는 시장현금가치 (MCV)	주류/비주류 경매		의뢰 시점에 따라 변동
자본 이득 (Capital Gains)				
담보 (Collateral)				
청산 (Liquidation)	시장현금가치 또는 청산가치 (LV)			

1. 사용 목적 (Purpose of Appraisal)

시가감정업무 수행의 첫 단계는 시가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술품 시가감정이 필요한 목적을 명확히 해야 그 가치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시장위치 파악하여 자료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 시가감정의 수요처에는 보험회사, 법원, 변호사, 국세청, 회계사, 은행, 상속자, 소장가(개인과 법인, 기관을 포함), 경매회사, 갤러리, 작가 등이 있다. 이들에게 시가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는데 아래의 항목 외에도 더 다양한 사유로 시가감정이 이용됨을 참고하도록 한다.

- 보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할 경우 부보액을 설정할 목적
- 손상/손실: 미술품이 손상 또는 유실,분실될 경우 보상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금을 산출할 목적
- 유산/상속: 사망으로 미술품의 소유권이 상속자에게 이전될 경우, 가치를 평가하거나 세금을 산출할 목적
- 기부³: 미술품으로 기부/기증할 경우 그 가격을 평가해 기부금액을 결정하거나 세금을 산출할 목적
- 공평분배: 파산, 이혼 등의 사유로 미술품을 공평하게 분배할 목적
- 재판매/목록/자산운용: 소유중인 미술품을 판매, 목록화, 자산운용의 목적으로 현재가치를 평가할 목적
- 자본 이득: 미술품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할(또는 발생한) 매매 차익을 산정할 목적
- 담보: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 혹은 채무의 변제를 확보할 경우 담보금액을 설정할 목적
- 청산: 청산 과정에서 미술품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그 미술품의 매각 예상가를 산출할 목적

²USPAP에서는 부동산, 동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본 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미술품’을 전제로적용한 바,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일러둔다.

³미국 국세청에서는 기부 품목이 5,000USD (약 600만원) 이상일 경우 감정보고서가 필수이며, 최소 2년 이상의 기부 목적 감정 경력이 있는 감정사 (Donation Appraiser)가 작성한 감정보고서만 인정한다.

2. 가치 유형 (Type of Value)

- 소매대체가치 (RRV, Retail Replacement Value)
제한된 시간 안에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미술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가치유형으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치 유형이다. 미술품 가격에 자문료, 구매 수수료/중개 수수료, 세금, 운송/설치 비용, 액자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이다.
 - 공정시장가치 (FMV, Fair Market Value)
강압적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하여 결정된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가에서 구매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시장현금가치 (MCV, Marketable Cash Value)
경쟁이 가능한 개방적 시장에서 미술품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수수료, 보험료, 운송료 등)을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판매자가 얻게 되는 순수 금액이다.
 - 청산가치 (LV, Liquidation Value)
합리적인 시간⁴을 갖고 미술품을 처분하는 경우의 가치 유형이다.
 - 강제청산가치 (FLV, Forced Liquidation Value)
강압적인 환경과 제한적인 시간 안에 미술품을 판매할 경우에 사용되는 가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청산가치 보다 약 20%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 그 밖에도 잔존가치⁵ (Scrap Value), 장식적가치(Decorative Value), 구제가치(Salvage Value)등 수십 가지의 가치 유형이 있지만 순수미술의 영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시장 위치 (Market Place)

여기서 말하는 '시장 위치'는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이 거래되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의미한다. 갤러리 위주로 조사할지 경매시장으로 접근할지, 딜러 시장으로 살펴볼지, 가장 적절한 시장의 단계 (Market Level)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시장 위치를 안내하고 있지만 그 시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장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험 목적의 감정인데 오로지 경매 기록만 존재한다면 이때는 경매가 '시장 위치'가 된다. 반면, 공평분배 목적이면 경매시장의 거래사례를 조사해야 하는데 작품의 특성상⁶ 경매기록이 없다면 소매시장인 갤러리의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4. 접근법 (Approach)

시가감정의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적절한 시장 안에서 동일성 혹은 유사성 있는 다수의 거래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거래사례 비교법(Sales Comparison Approach)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보험처리 목적에는 미술품의 복제, 재생산, 유사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 산출을 근간으로 한 비용 접근법 (Cost Approach)이 사용되기도 한다. 소유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입까지 고려한 소득 접근법(Income Approach)도 있지만 미술품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 유효 일자 (Effective date)

시가감정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유효 일자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목적의 시가감정 보고서에는 현장 답사하여 미술품을 실제로 조사한 날짜가 기준시점이 되며, 손상/손실의 경우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 유산이나 상속을 위한 시가감정은 사망일자 혹은 사망 6개월 이내에 시가감정 보고서가 유효하며, 기부/기증의 경우는

⁴합리적인 시간(Reasonable exposure time)은 해당 작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기간, 즉 일반적으로 판매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작품에 따라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작품의 '합리적인 시간'은 1달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작품의 '합리적인 시간'은 1년 이상이 될 수 있다.

⁵순수 재료만을 인정하는 가치로, 은식기(Silver ware)의원 재료인 은시세만 그 가치로 인정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⁶예를 들어 미국 여류작가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 b.1941)의 일부 조각작품은 깨지기 쉬운 레진이 재료인 연유로 전속 갤러리에서만 거래되어 경매기록이 전무하다. 이런 경우 올바른 '시장 위치'는 1차 시장이 된다.

소유권의 이전시점에 관여된다. 재판매, 자본이득, 담보 등의 목적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Ⅲ. 자료 수집 및 분석

1. 시장 분석 (Market Analysis)

시장분석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이다. 미술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상 작품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주로 거래되는 국가/도시는 어디인지, 갤러리/경매 중 어느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지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분석 기법의 핵심이며 꾸준한 리서치와 축적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시장 파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하나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3] © Sharon Christ

[그림 3] 의 가구는 미국 뉴햄프셔의 한 경매회사에서 '19세기 조지안 시대' 가구' 분야에 출품돼 4,000USD(480만원) 낙찰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얼마 후 뉴햄프셔의 개인딜러가 이 가구는 조지안 시대가 아니라 '19세기 이탈리아 안티크'라고 정정하면서 이전 경매기록의 두 배가 넘는 9,500USD(1,140만원)에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커네티컷의 한 딜러가 이 가구는 19세기가 아니라 바로 '18세기 베네치안 안티크'라 규정하면서 다시 두 배를 상회하는 25,000 USD (3,000만원)에 팔게 된다. 곧이어 이를 구매한 로마의 한 딜러는 미국을 벗어나 유럽시장으로 가 이 안티크 가구를 자그마치 45,000USD(5,400만원) 판매 했다. 약 1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거래금액의 격차가 상당하다. 이를 통해 숙련된 안목으로 정확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알려준다.

시가감정 보고서에서 시장분석을 기재할 때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전체적인 미술시장 현황의 서술을 시작으로 특정 미술분야⁸에서 시장 흐름을 거론하고, 이어서 작가시장과 작품시장을 결부시켜 서술한다. 감정보고서의 사용자는 미술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해득을 위해 시장 동향이나 작가시장 분석은 가격지수나 그래프 형식의 표를 덧붙여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논리를 세워 감정가의 의견을 도출하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는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아래의 대표적인 미술전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시장분석 자료를 참고해 더욱 수준 높은 감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표 2]

웹사이트	자료 제공	홈페이지 주소
아트프라이스(Artprice)	미술시장 현황 보고서, 작가 지수, 경매 기록	www.artprice.com
아트택틱(Arttactic)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 미술과 금융 보고서	arttactic.com
아트넷(artnet)	작가 분석 자료, 경매 기록, 관련 기사	www.artnet.com
아트바젤(Art Basel)	연간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	www.artbasel.com
에스크아트(Askart)	작가 관련 정보, 작가 지수	www.askart.com
아트시 (Artsy)	갤러리 가격	www.artsy.net
아트마켓 모니터 (Art Market Monitor)	미술 관련 기사, 전시 소식	www.artmarketmonitor.com
아트 뉴스페이퍼 (The Art Newspaper)		www.theartnewspaper.com
월 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	경매 결과, 일반적인 미술계 소식	www.wsj.com

⁷안티크 연대표에서 조지안 시대(Georgian Period, 1714~1837년)의 가구는 우아하면서 역동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⁸한국 미술시장에서는 고미술, 근대미술, 현대미술, 해외 미술 등의 분야로 구분되는 반면, AAA 에서는 시대별, 지역별, 작품 스타일 별로 수십여 가지의 분야로 세분화 되어있다.

2. 비교작품 분석 (Comparable Analysis)

비교작품은 갤러리, 작가 스튜디오, 딜러, 경매 등의 거래 사례를 조사하면 된다. 경매 기록은 아트넷이나 아트프라이스 등 비교적 용이한 접근으로 인터넷 조사가 가능하지만, 1차 시장에서의 정보를 얻는 일은 추가적인 수고와 제약이 따른다. 갤러리나 아트페어 등 비교 작품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익숙해지면 갤러리 담당자와 친분을 쌓아 왕래의 수고스러움을 덜 수는 있다. 발전하여 그들과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면 그 작품의 실제 판매 금액까지도 알 수도 있겠지만, 통상 갤러리에서는 매도인지정가격(Asking price⁹)만 알려주고 거래성사된 실제 거래가¹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거래사례를 모두 수집했다면 어떤 거래가격을 가장 영향력 있는 근거로 선택할 것인지 감정 목적, 작품 특징,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후, 일관된 논리로 분석한다.

[표 3. 비교작품 선정의 예]

시가감정 대상작품	비교 작품 ①	비교 작품 ②
		
[그림 4]	[그림 5] ©artnet	[그림 6] ©artnet
Kaws, <COMPANION(Brown)> 2007, ed100 Painted cast vinyl, 128.2x57x35cm	Kaws, <COMPANION(Grey)> 2007, ed100 Painted cast vinyl, 127x56x35.6cm Sold for: 118,750 USD Estimate: 25,000-35,000 USD Phillips New York, 13 Nov 2019 Contemporary Art Day Sale Lot 0519	Kaws, <COMPANION(Brown)> 2007, ed100 Painted cast vinyl, 128.2x57x35cm Sold for: 151,308 USD Estimate: 32,000-45,000 USD Phillips Hong Kong, 26 May 2019 Contemporary Art & Design Day Sale Lot 0204

[표3]과 같이 비교작품을 조사할 때는 시가감정 대상작품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작품을 선정하여 의뢰인 및 그 외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2년(부득이 하다면 5년)내의 기간을 한정하고 자료조사 하되, 자료가 수십 건에 달한다면 3건 정도로 선별하고, 해당 작가의 거래 기록이 전무하다면 동일한 미술사조의 유사한 스타일의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의 거래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감정보고서 작성시 대상작품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비교작품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작품의 크기, 주제, 재질, 제작 연도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고, 시장에서 유독 수요가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 작가 행보에 있어서 미술사적 중요한 연대기 작품의 경우 등 시가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분석하여 그 가격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비교작품 분석 기법의 핵심이다.

⁹ Asking Price는 매도인이 판매하려는 재화의 제시가격으로 '매도인지정가격'으로 번역되지만, 본글에서는 '갤러리 가격'을 의미한다.

¹⁰ 미술관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할 경우 '미술관 가격(Museum Price)'을 적용 받는 등 갤러리의 거래는 고객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작품을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한정된 공급에서 수요가 몰릴 때에는 대기자 명단(Waiting list)의 순번을 기다려야 하며 당연히 할인 금액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Asking price'와 실 거래가에 차이가 존재한다.

구분	1. 초급 (잠재적 시가감정가)	2. 중급 (준 시가감정가)	3. 고급 (전문 시가감정가)
대상	5년 이상 유관경력 및 시가감정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 연구/학습이 가능한 자	초급 과정 수료자로서 중급과정 수료 후 즉시 시가감정가로 활동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	중급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특정 분야에서 시가감정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교육내용	* 미술시장 및 시장 가격의 이해 * 시가감정의 개요 * 시가감정 실무 이론 * 시가감정가의 윤리규정	* 시가감정 이론과 방법론 * 시가감정 보고서 사례연구 * 시가감정 보고서 실습	* 전문 분야별 시가감정 사례의 분석 및 토론
수업방식	강의, 현장학습, 자율 토론	강의, 과제 발표	정기적 워크숍
이수시간	30 시간	30 시간	지속
수료기준	출석률, 객관식 및 서술형 시험	수업 참여도, 서술형 시험	없음

1. 초급 과정

초급 과정은 잠재적 시가감정가를 육성하는 단계로, 전공은 무관하지만 미술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필수 요소이며 시가감정가가 되기 위한 뚜렷한 목표는 물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할 의지가 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한다. 미술시장의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의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시가감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이론은 학습하게 된다. 3회에 걸친 현장학습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이 이론수업인 만큼 자칫 집중력이 저하시킬 수 있는 바, 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습득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1강) 미술시장의 이해

미술시장의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첫 수업의 주제이다.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이해하고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상호 관계를 파악한다.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와 국내 미술시장을 비교하면서 지난 20년간 미술시장의 흐름을 공부한다. 이 과정에서 아트넷, 아트프라이스와 같은 미술시장 전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지수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2강) 작품 생산과 가격의 형성 (현장학습)

레지던시 혹은 작가 작업실 등을 방문하여 작가의 창작활동 과정과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 작품 제작비와 작가의 창작비 등을 더하여 최초로 산출되는 '작가 가격'에 대한 작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본다. 여기서 유화를 주 재료로 하는 작가와 설치 혹은 미디어 작품에는 재료비의 간극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염두 하도록 한다. 갤러리 수수료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예상하고 다음 회차에 공부하게 될 1차 시장 가격 형성을 예측한다.

3강) 갤러리 가격의 이해 (현장학습)

앞서 생산된 작품이 최초로 거래되는 지점을 공부했다면 이번 수업에서는 1차 시장의 역할과 1차 시장에서 가격 형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갤러리를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갤러리 운영자의 설명을 통해 작가를 선별하고 전시기획 하는 과정과 마케팅 전반의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여기서 작품이 대중에게 거래되는 1차 시장의 작품가격이 형성되는 논리와 향후 2차 시장의 연계로 1차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4강) 경매시장 가격형성 (현장학습)

메이저 경매 프리뷰가 있는 기간에 경매회사에서 현장수업을 진행한다. 1차 시장과는 다르게 경매시장에서의 가격은 '응찰자들의 패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멈추는 지점'에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매회사가 경매작품을 선정하고 경매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전반을 배우는데 특히 스페셜리스트가 작품의 추정가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중점으로 새겨들어야 한다. 더불어 작품의 상태조사에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고

스페셜리스트의 실제 작품의 상태조사를 간접 체험한다. 상태조사를 통해 작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 경매당일에는 각자 자유롭게 경매 참관하여 긴박감이 넘치는 경매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5강) 가격형성의 요인

미술품 가치평가에 미치는 세부요인들을 학습한다. 작가적 요소로는 생존여부, 명성, 전시 및 수상 이력, 작가 인지도 등이 있고, 작품적 요소에는 작품의 주제 및 재료, 창작 시기, 크기, 서명 및 진위문제, 작품상태, 소장이력, 희소성, 시장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환경적 요소로는 미술시장 상황과 경기변화, 시대적 소장 트렌드, 전속 화랑의 역량 등이 그 요소로 볼 수 있다.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후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를 보며 실전감각을 키우도록 한다.

6강) 시가감정의 이해

시가감정(Appraisal)이란 사실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사물의 가치를 도출하는 행위이다. 가치(Value), 가격(Price), 비용(Cost)의 개념을 구분 할 수 있어야 하며, 미술품 시가감정에 관련된 전문용어를 기본적으로 숙지하여 시가감정의 의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의 현황을 알아보고, 해외 현황은 미국의 사례로 접해본다. 미국감정평가재단(TAF)이 창설된 배경과 그 산하조직인 감정가 자격위원회(AQB), 감정평가 기준위원회(ASB)가 하는 일, USPAP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성과 공신력에 기반을 둔 시가감정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미국의 현주소를 들여다 본다.

7강) 시가감정의 목적 및 유형

시가감정은 목적에 따라 가치유형과 평가방법, 효력일자가 달리 적용된다. 시가감정보고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보험, 기부, 공평분배, 자산운용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소매대체가치, 공정시장가치 등 평가 유형과 그에 따른 평가방법, 그리고 효력일자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통달 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을 온전히 습득해야 올바른 시가감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8강) 시가감정가의 역할 및 자격, 업무 범위 규정

시가감정 업무는 시장분석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세워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 하는 일이다. 해당 분야의 학술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성과 능숙함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며 독립적(Independent), 객관적(Objective), 공정한(Impartial)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미술품 분야를 구분하고, 적절한 시장을 이해하는지, 시장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지, 시가감정의 목적을 이해하고 알맞은 평가 유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정보수집 및 수행 방법론을 이해하는지, 개인 혹은 2명 이상의 집단이 함께 시가감정을 수행하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학습한다.

9강) 시가감정가의 의무와 책임

지난 8강에 이어 시가감정가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유념해야 할 윤리규정을 명심하도록 한다. 시가감정가의 윤리규정이란 미술품을 감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에 못지않게 법적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입견(Bias)을 갖거나, 특정집단의 쟁점에 편중되거나, 미리 결정된 결론에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업무 수행범위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영국의 감정인력 윤리규정을 살펴본 후, 시가감정가의 실무에 적용되는 행동(Conduct), 관리(Management),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의 규정을 통해 감정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강) 시가감정 보고서개론

본 과정을 마친 후 수강생의 다수가 중급 과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지막 강의에는 실제 시가감정 보고서의 항목과 작성 방법을 예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2. 중급 과정

본 과정은 준 시가감정가를 육성하는 단계로, 시가감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고도의 훈련을 완성하는 것이 중급 단계의 목표이다. 시가감정은 추정이나 추측이 아니며, 명확한 사실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 분석하고 타당한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므로 이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에는 시가감정에 방법론을 연구하고 중반부터는 시가감정의 사례들을 접한 후 직접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보고서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고안했다.

1강) 개요

초급 과정을 요약하여 복습하는 시간으로 시가감정의 의의, 용어 정리, 사용 목적, 가치 유형, 평가 방법론, 시장 분석기법을 비롯하여 시가감정가의 자격요건 및윤리규정을 정리해 본다. 아울러 게티 오브젝트 아이디(Getty Object ID)가 제시하는 체크 리스트를 통해 작품 현장 조사 (On-site Inspection)의 필수 항목들을 기억해 둔다.

2강) 미술품 시가감정 회사¹¹ 탐방 (현장학습)

가능하다면, 미술품 시가감정 기관이나 회사를 방문하여 시가감정업 현장을 체험한다. 기관/회사의 창단 스토리, 조직 구성과 기업 이념 등 전반적인 설명을 시가감정 실무를 접한다. 의뢰인의 연락을 시작으로 업무타진 단계, 작품의 현장조사, 사용목적을 규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 경험담의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감정가와 한층 가까워져 본다. 미래에 본인이 시가감정가로 활동할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3강) 시감정 보고서 양식

먼저 기본 서식(Basic Appraisal Format)에는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구분해 본다. 보험 시가감정 보고서 양식(Insurance Appraisal Format), 손상/손실 시가감정 보고서 양식(Damage/Loss Appraisal Format), 상속/증여 시가감정 보고서 양식 (Estate Appraisal Format), 기부금 시가감정 보고서 양식(Non-Cash Charitable Contribution Appraisal Format), 공평분배/청산시가감정 보고서 양식(Equitable distribution/ Liquidation Appraisal Format) 등 목적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염두에 하며,앞으로 실습하게 될 보고서 작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4강) 시가감정 연구-비교작품 중심으로

앞으로 3회차에 걸쳐 각각 다른 조사 방법론은 적용한 시가감정 보고서의 사례를 살펴보게 된다. 그 첫 시간으로 비교 작품을 선택하는 요령을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아트넷이나 아트프라이스 같은 웹사이트에서 경매기록을 검색하고 여러 개의 경매기록 중에 어떤 기준으로 유사작의 경매기록을 선정하는 지를 고민해본다. 그리고 1차 시장의 유사작품의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유사작품 조사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과 주의할 점 등을 학습한다. 본 방법론을 활용한 시가감정 보고서의 모범사례를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한다.

5강) 시가감정 보고서의 사례 연구-시장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에는 유사작품의 기록들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거시적인 시각으로 미술시장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가감정 보고서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유사 작품 조사에 더불어 그 유사작품의 시장을 파악하고 그 시장의 동향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

6강) 시가감정 보고서 사례 연구-유사 작품이 없는 경우

이번 수업에는 유사작품의 경매기록이 전무한 경우 시가감정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신진 작가, 경매기록은 없지만 전속 혹은 그 작가를 조명하는 갤러리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기록을 거의 찾

¹¹ 국내의 경우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이 활동 중으로 확인되며,미국의 대표적인 미술품 시가감정 회사로는 윈스턴 아트 그룹 (Winston Art Group, <https://winstonartgroup.com/>), 거 존스 (Gurr Johns,<http://gurrjohns.com/>)가 있다.

아 볼 수 없는 작고 작가, 미디어 작품, 설치 작품, 야외 공공미술 작품 등의 자료 조사가 난해한 경우는 어떻게 감정 하는지 고찰해 본다.

7강) 시가감정 보고서 조별 실습 I (난이도 하)

앞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시가감정 방법론을 익히고 사례를 학습했다면, 앞으로 4회에 걸쳐 시가감정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해 실전감각을 키운다. 난이도는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그 첫 시간에는 비교 작품의 경매 기록이 많은 작품으로 실습을 시작한다. 3명씩 조를 이루어 서로 협업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8강) 시가감정 보고서 개별 실습 II (난이도 중)

각자 자유롭게 작품을 선정하여 시가감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시장분석 기법과 유사작품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완성도 높은 시가감정 보고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을 서로 논의하여 보고서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집중하도록 한다.

9강) 시가감정 보고서 조별 실습III (난이도 상)

경매기록이 없는 작품을 선정하고 2인 1조가 되어 자료 수집과 분석 기법을 최대치로 활용하여 연습해본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총 망라하여 논리를 전개하되 강사는 수강생의 보고서 작성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0강) 시가감정 보고서 리뷰

강사는 작품을 1점 지정하여 미리 작성한 시가감정 보고서를 발표 시키고, 서로 보완점을 교류하여 최고 수준의 시가감정 보고서를 완결시킨다. 이 경험은 향후 시가감정 업무를 수행할 때 한가지의 표본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급 과정

시가감정업에 오래 종사하고 있어도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하다 보면 정체현상을 빚거나 시야가 좁아져 독단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고급과정에서는 지정된 수업 커리큘럼이나 이수 시간의 제한 없이, 시가감정 업무의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위주로 서로 토론하여 보완해 나간다.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해외 연계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 시가감정가 그룹을 육성하여 추후 국내 시가감정의 중심축이 되는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운영 목표이다.

V.결론

본 프로그램과 결과보고서를 수행하면서 미국 감정평가 제도의 컨셉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을 표상으로 한국 미술품 시가감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필자가 시가감정가 육성 프로그램에서 제안하였듯, 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적 감정가→준 감정가→전문 감정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 시가감정가의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생각해 본다. 미국 감정평가재단이 AQB, ASB를 산하조직으로 두고 감정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시가감정 인력풀이 구성되면 전문 위원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개념과 용어 정형화, 감정가의 자격 심사, 감정서 양식의 표준을 개발하고 보완해 가며 실무에 보급하는 과정이 행해지면 한국 시가감정 체계 구축에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운영 방안, 해외 연계 워크샵 등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 채 본 자료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미술품 시가감정가의 육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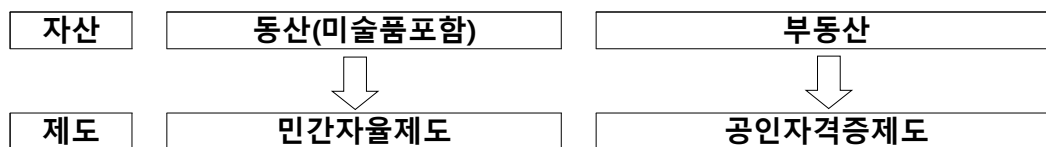
주제	미국의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과 인력양성	작성자	신청원
----	-----------------------	-----	-----

I. 미국감정평가제도의 이해

1) 미국의 감정평가제도 개요

-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가치 산정 니즈 충족을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 발전함. 초기 자생적 발생과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자산별로 각기 다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감정 대상을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고 있으며 주정부 관리체제와 민간자율 체제를 병행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미국의 감정평가제도 개요



- 부동산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대지 등을 지칭함. 금융기관 담보가치 산정,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해 부동산감정평가가 주로 실시됨. 2019년 기준 미국의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은 US\$87억(한화 10조 4400억 원)규모이며 올해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Orbis Research, 2019).
- 현재 부동산 평가사 규모는 9만 명을 상회함(표 2 참조1))

표 2 미국 부동산 감정평가사 현황

	일반허가	주택공인	일반공인	합계
2014	9,507	51,240	38,777	99,524
2015	8,622	50,427	39,257	98,351
2016	7,933	49,654	39,269	96,856
2017	7,749	48,720	39,262	95,731
2018	7,481	47,908	39,135	94,524

- 동산은 보석, 가구, 기계장치, 항공기, 자동차, 골동품, 미술품 등을 지칭함. 동산의 감정평가는 보험료 산정이나 세무보고-소득세 기부금 공제액 산정, 상속 가액 결정- 등을 위해 주로 실행됨. 등기를 필요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기관 담보와 연결된 감정평가 위주의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의 추정이 용이한 반면 동산 감정평가시장은 개인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동산의 한 분야인 미술품의 시가감정평가시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IRS 제출된 기부금 공제 관련 미술품감정평가서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시장규모를 예측할 경우 약 460억 원 규모로 추정됨 (표 3 참조)

표 3 기부금 공제 미술품시가감정 시장규모 추정(단위: 건, US\$)

2017 미술품 기부금 건수	127,555건
건당 수수료 ²⁾	US\$300
추정 시장규모	US\$38,270,000

1) 출처: Appraisal Subcommittee, 2019

2) 감정평가 실무규정(USPAP)

- 1980년대의 저축대부조합부실사건 이후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추락함. 자산의 과대평가와 불법감정평가를 막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의 공통기준 제정의 필요성 제기됨. 특히 “시가(Market Value)”에 대한 개념 정의의 필요성 대두됨
- 1987년, 연방법률(FIRREA)에 따라 구성된 감정평가소위원회(Appraisal Subcommittee)의 감독 하에 감정평가재단(The Appraisal Foundation)에서 감정평가 실무규정을 제정함.
- 감정평가재단은 부동산과 동산의 감정평가사들의 협회 8개의 연합 재단임. 민간 협회들의 모임에서 USPAP을 제정하는 구조이지만 감정평가소위원회의 검토 후에 공표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이익과 공공이익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
- USPAP은 2년마다 갱신됨
- USPAP(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은 감정평가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 간의 질적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비교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USPAP은 평가방법과 기준, 자료수집 방법,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감정평가사를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신의성실 의무(Due Diligence) 준수 여부의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함
- 모든 자산 유형에 적용되는 개념정의/서문/규칙 부문과 자산 유형별로 적용되는 평가기준/특정 이슈별 견해 등으로 구성됨
- USPAP의 핵심인 규칙은 다시 직업윤리규칙(Ethic Rule), 기록유지규칙(Record Keeping Rule), 능력규칙(Competency Rule), 업무범위규칙(Scope of Work Rule), 그리고 관할권 예외규칙(Jurisdictional Exception Rule)로 구성되어 있음
- 직업윤리규칙은 감정평가업무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전문직으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이기도 함(Due diligence). 즉, 감정평가사는 중립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합의된 평가액에 맞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평가보고서의 불법적 사용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감정평가보고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USPAP에서 제시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준수하였다는 서약임을 명시하면서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기록유지규칙은 감정평가 과정을 기록으로 남감으로서 전문가로서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규칙임. 이때 기록은 문서에 국한하지 않음. 회의 내용이나 대화 등도 기록으로 남겨야 함을 강조함. 기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판결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해야 함. 기록유지규칙을 어기는 것은 직업윤리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됨을 강조하고 있음
- 능력규칙은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적인 부족이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됨을 명시함. 이 때 능력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칭함. 업무 수락 이후 능력부족을 발견할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지식과 경험 부족을 충족시키는 모든 수단(전문가 고용 포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업무범위규칙은 업무에서 다루는 문제 확인, 업무 범위 결정,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게재하는 세 단계의 규칙을 설정하고 있음. 이 프로세스는 평가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계이며 규칙임
- 관할권 예외규칙은 USPAP이 법령이나 공공규칙에 배치될 경우, 효력이 정지됨을 명시하고 있음. 감정평가사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배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치될 경우 이 사실을 보고서에 적시해야 함
-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USPAP 적용을 법률로 강제함.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USPAP 준수를 위해서는 최초 15시간의 교육 수료 후 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된 규정 등에 대한 7시간의 추가적인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동산 감정평가사는 교육 강제조항 없으나 개별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평가대상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기관은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USPAP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더불어 IRS에 제출되는 감정평가서는 USPAP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2) RS에서 제공하는 시가감정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US\$6,500 가치의 작품 1점에서 3점까지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수수료 US\$300으로 책정하고 있음(출처: Internal Revenue Bulletin 2018-1)

감정평가사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따라서 미국의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USPAP를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3) 미술품 감정평가서의 관리체계

- 정부주도의 자격관리가 행해지는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와 달리 동산(미술품 포함)은 민간자율(예: 협회 자격증제)에 의존한 감정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허가나 공인자격증 제도가 부재함에 따라 동산의 감정평가는 개별 감정평가사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USPAP이 감정평가서의 품질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잣대이기 때문에 USPAP 준수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특히 주요 협회는 USPAP준수를 회원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새로이 개정된 USPAP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더불어 IRS가 미술품감정평가서의 질적 관리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음.
- 직접관여 방법으로 "Qualified Appraisal"조항과 벌금, USPAP준수 등을 활용하고 있음
- "Qualified Appraisal"은 "Qualified Appraiser"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요 협회 회원이거나 대학 교육, 실무경험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감정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감정평가서는 USPAP를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효력일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수수료와 연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함 (IRS Regulation section 1.170A-17(a)) 나아가 감정평가 불가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불법감정평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부, 직, 간접 당사자나 해당 작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자,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은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감정평가사의 자격에 대한 매우 느슨한 수준의 규정만으로도 IRS가 과세와 관련된 감정평가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임. 잘못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은 물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발하는 방식을 통해 감정평가의 질을 관리함.
- 한편 간접적 방법으로 감정평가검토(Appraisal Review)를 실시, 평가 오류를 지속적으로 선별, 감독하고 있음. 감정평가검토는 IRS에 제출된 미술품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전문가 25인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평가액 차이에 따라 납부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 수정을 요구하거나 고발 조치하고 있음.

II. 미국의 미술품 시가감정평가사 양성 교육과정의 이해

1) 협회중심의 교육 구조

-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력한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와 달리 동산의 감정평가는 정부기관의 규율을 받지 않고 민간자율로 운영됨. 다만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협회차원에서 회원 자격 규제의 조건(교육과 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협회들은 자신의 위상 정립과 회원의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자체적인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해야만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USPAP지속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관련 협회 중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협회로는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ASA),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AAA),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ppraisers(ISA), Private Art Dealer Association 등이 있음.
- 대학들은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음. 미술품 시가감정시자의 중심인 뉴욕시의 경우, FIT, NYU 모두 시가감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교육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한 상태임
- 정규교육과정 보다는 단기교육프로그램을 협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더 일반적임. 일례로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Purchase College는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와 협력하여 2주간의 Summer Appraisal Camp를 운영하고 있음. 코스 구성과 비용은 협회 내부 프로그램과 유사함
- 부동산 시가감정 교육과정이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는 것과 크게 차이를 보임. 공인시험과 공인자격증제도로 운영되는 부동산과 달리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미술품 시가감정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함.
- 시장 영향력이 높은 기존 협회들이 수익사업으로 고가의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별협회

들이 대학의 정규교과과정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즉,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 때문으로 감정평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자격이 필요하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효용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이는 민간자율제도의 약점인 시장지배자에 의한 시장교란현상 사례로 대학교육이 정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한편 IRS에서 제시한 "Qualified Appraiser"의 조건에는 대학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대학교육 만으로는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2) 대학의 시가감정교육과정 부재와 대안

- 대학 교육과정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뉴욕의 주요 대학인 NYC와 FIT를 방문,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 도입 현황을 알아봄. 특히 FIT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정 도입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
- 먼저 FIT는 정규학위과정에서 Art Business Education Course를 운영하고 있음. 이 과정 중에서 시가감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가감정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USPAP-Art Appraisal Standard Practices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그러나 감정 방법론이나 감정보고서 작성 실습 등의 세부과목에서는 더 이상 강의를 개설하고 있지 않다고 함.
- FIT가 교육과정에서 시가감정 분야의 강의를 축소한 것은 민간자율 시스템 속에서 대학의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민간이 관리한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단체들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장을 장악한 단체들이 entry barrier를 높인다면 새로운 조직-대학 포함-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함
- 일례로 미술품시가감정협회(AAA)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감정방법론, USPAP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은 자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주어짐. 즉 해당단체의 수익사업인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며 교육프로그램은 약 US \$5,000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음.
- 따라서 FIT에서 수업을 수강하더라도 AA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교육은 그 효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줌. 결국 FIT내부 교육으로는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최소 과목만을 개설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였다고 함
- NYC는 정규교육과정으로 미술품시가감정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함. NYC는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에서 Professional Pathways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해당 교육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전문가로의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과정임. 현재 회계, 법률, 건축 등 총 32개의 학문과 연계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함. 미술분야의 경우 미술품시가감정과 관련된 강좌도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 2개(학기 당 1개)의 강좌를 운영 중임.
- NYC는 2012년 AAA와 협업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데 현재는 해당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함. 현재로는 유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함. 해당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음
- 결국 협회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에서 대학 정규과정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사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오히려 이들 대학들은 미술시장에 대한 기초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었음. 뉴욕주립대학의 뉴욕시 분교인 FIT는 디자인, 패션, 예술과 경영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지가 높은 대학임인데 특히 예술과 경영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졸업 후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예술대학이지만 사회적 니즈에 초점을 맞춘 교육관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두각을 나타냄.
- 특히 FIT 석사과정에 Art Market Studies 전공이 개설되어 있음. 상업화랑, 경매회사, 아트 페어, 미술관, 문화재단 운영, 감정평가법인 운영 등 미술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강의 3학기과 인턴쉽 1학기로 구성되어 있음.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미술이론 및 미술사 강의는 물론 시장 이해를 높이

기 위한 경제/경영 강의와 법학 강의, 미술품 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예술대학의 커리큘럼과 차별화 하고 있다고 함. 이는 예술중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Social Science)전공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임

- FIT 예술시장전공(Art Market Studies)에서는 Art Market Research and Evaluation, History of Art Market, Core Business Principles, Art Law and Professional Ethics, Gallery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Auction Business, Market for Art Organization 등의 강의를 수강해야 함. 강의의 다양성의 예로 Core Business Practice 과목 강의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공받음. 해당과목에서는 경제학, 재무학, 회계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함. 예술경영일지라도 해당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음
- 이러한 강좌들은 미술품 시가감정과 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술시장을 이해하고 시장동향을 분석하며 가격 자료를 활용한 분석 방법론을 배운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음.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양성하는 분야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로의 진출이 가능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전략이지만 시가감정사에게 요구되는 시장 분석 능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강좌임. 특히 협회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초교육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전략적 접근이 돋보임

3) 협회별 교육프로그램 분석

- ASA는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상위개념인 동산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 운영 중임. 회원자격조건은 자체교육과정 수료, 자격시험 통과,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실무경력임. 반면 AAA는 미술품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강점임. 회원자격조건은 자체교육과정 수료, 자격시험 통과임.
- ASA의 자체 교육과정은 ①동산 시가감정 교육과정 ②USPAP 교육과정, ③기타 추가 교육과정으로 구성됨(<표 1> 참조). 동산 시가감정은 필수과정으로 총 4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 시험으로 통과 여부 결정됨. USPAP은 15시간 단일 교육으로 시험 통과를 전제로 함. 기타교육과정은 방법론, 법률 등 시가감정 공통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과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과정은 아님(표 4 참조)

표 4 ASA 동산 시가감정 교육과정(필수)

강의명		내용	시수	수업형태	수강료
동산시가 감정 필 수	시가감정개론	시가감정 방법론 감정관련 개념의 이해 경제동향의 이해	27	온라인/ 오프라인	US\$895
	자료조사와 분석	감정업무의 범위 시가감정 방법론 자료 조사 방법 자료의 분석 및 평가 실습	27	오프라인	US\$895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법 자료의 정리 보고서 작성 연습 작성보고서 리뷰	27	오프라인	US\$895
	법률과 실무	관련 법령과 규제 윤리 강령 목적에 따른 방법론 시가감정서 작성과 발표	27	오프라인	US\$895
USPAP	USPAP-동산	윤리강령 실무규칙 동산 감정시 주의사항	15	온라인 오프라인	US\$450

- AAA는 정회원 자격 트랙을 두 종류로 운영함: ①미술관련 실무 경험 5년 미만인 경우, 자체 교육프로그램(CASP)을 수료하면 준회원자격이 주어지며 3년 이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정회원이 되는 트랙과 ②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120시수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추가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정회원이 되는 트랙.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의 교육과정(Comprehensive Appraisal Studies Program 또는 CASP)은 4주 오프라인 집중코스 또는 2학기 온라인 코스로 운영 중임. 총 120시간 정도의 시수로 구성³⁾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US\$5,200임(표 5 참조)

표 5 AAA의 준회원 교육과정(CASP)

강의명	내용	시수	강의명	내용	시수
오리엔테이션		3	USPAP	USPAP의 이해 시험 통과 필수	15
시가감정 개요	시가감정 개괄	4	경매의 이해	경매 용어 및 절차의 이해	7
자료수집	자료수집 Due diligence	14	법과 윤리	직업 윤리 소유권 등 법률이슈	7
장식미술 이해	17-19세기 장식품 스타일 이해	7	장식품복원	복원기법의 이해	4
판화의 이해	판화기법, 주요 판화작가	7	손실과 도난	보험목적의 감정	7
상속자산	다양한 자산 유형과 개별 시가감정	7	액자 이해	시대별 액자 양식 가치 산정	7
미술품 감정	시가감정 방법론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7	IRS	세법의 이해	7
평가서 작성실습	평가서 요소들에 대한 이해 및 실습	14	직업으로서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회사 개업 및 운영	8

- 한편 AAA는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의 교육과정은 USPAP, 시가감정 이론 및 방법론, 감정평가서의 작성, 자료 수집 및 분석, 법과 윤리 등 5개 수업으로 구성됨. 해당 프로그램이 이번에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직접 수강함
- ISA 또한 다른 협회와 유사한 회원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음. 협회 교육과정 수료를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ISA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①공통교육과정, ②USPAP 교육과정, 그리고 ③전문분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통교육과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총 25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음. 사용목적에 따른 시가감정 방법론, 평가 업무의 범위, 시장분석, 전문가 윤리, 감정평가서 작성 실무, 법률 이슈 등을 다루며 수강 완료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함. 오프라인 강의는 7일 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수강료는 US\$1,400임
- USPAP교육정은 다른 협회와 마찬가지로 15시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US\$400임
- ISA 미술품 시가감정을 위해서는 협회 자체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7일간 진행됨. 교육과정은 양식별 시가감정 방법, 판화에 대한 이해, 시각예술 분야 개념의 이해, 미술사 개론, 미술품 보존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수강료는 US\$1,400임

III. AAA 교육프로그램 소개

1)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의 구성

- 이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AAA 교육프로그램은 시가감정가 양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USPAP, 시가감정 이론 및 방법론, 감정평가서의 작성,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교육과정은 구성면에서 AAA 자체의 전문가 교육과정(실무경험 5년 이상 참여 가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성이었음
- 미술품 시가감정교육은 나라를 불문하고 적용 가능한 공통 분야와 해당 국가의 법률적 체계에서만 유효한 분야

3) 120시수는 the Appraisal Foundation이 권고한 최소 교육시수이기도 함

로 구성됨. 본 교육과정은 시가감정 방법론,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우리나라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과 미국의 세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설계된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공통 분야는 물론 미국 특화된 교육과정도 모두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미국제도의 특징- 운영방안, 투명성의 제고, 제도적 한계-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가감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함

2) USPAP의 이해

- 교육은 ①USPAP의 중요성의 이해, ②실무적 적용에 대한 이해, ③개념의 이해 등으로 진행됨
- USPAP은 단순히 실무기준의 의미를 넘어 전문가의 윤리강령으로 전문가의 의무(Due Diligence)기준임과 동시에 전문가 자신을 보호하는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을 강조함.
- 자산 유형별로 적용되는 평가기준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기준1-기준5: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기준
 - 기준6: 대량감정평가(Mass Appraisal) 관련 기준
 - 기준7-기준8: 동산 감정평가 관련 기준
 - 기준9-기준10: 기업평가 관련 기준
- USPAP의 미술품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준인 기준7은 업무수행 시 확인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으며 기준8에서는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방법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 기준7은 능력규칙 적용, 업무범위 설정 시 주의사항. 자료수집과 자료 확인, 시장과 경제동향 파악, 감정평가 방법 선정,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및 통합적 결과 도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기준8은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서의 용도, 효력일, 사용된 개념 및 감정평가방법론 등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업무의 범위(SCOPE OF WORK)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업무의 범위는 감정평가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일 뿐 아니라 감정평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임.
- 업무 범위 설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문성과 의뢰한 업무의 범위가 일치 할 때만 의뢰를 수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윤리와 직결되기 때문임. 이는 단지 감정평가서의 질이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Due Diligence의 기준으로 자신의 역량에 대한 고찰을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USPAP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나아가 업무의 범위(SCOPE OF WORK) 설정을 통해 감정평가의 목적에 대한 의뢰인과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음.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론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서 목적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여야 함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업무의 범위(SCOPE OF WORK)는 방법론의 선택 뿐 아니라 가정설정에도 영향을 줌. 의뢰품의 상태 및 의뢰 상황에 따라 일시적 가정(extraordinary assumption)이나 추정(hypothetical condition)의 적용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임. 방법론과 함께 가정의 채택은 감정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필수적임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업무범위가 설정된 이후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진행됨. 이때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는 감정평가서 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정 결과값의 신뢰성의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임. 특히 이후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평가사로서 의무를 다 했는가의 증거이기도 함.
-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는 화랑 거래가격과 경매거래 가격, 시장 동향자료, 유사 작품의 소유이력 등 수집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함. 즉, 의뢰 작품과 관련된 접근 가능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하며 해당 수집 자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함.
- 경매자결과는 유료사이트를 주로 활용함. artprice.com이나 artnet에서 해당 자료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음. 이외에 뉴욕공공도서관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Thomas J. watson Library 등에서 자료 수집이 가능함.
- 한국의 경우, 경매결과와 이미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는 없음. 위에 언급한 사이트는 국내 경매 결과 수집에 약점-주요 경매사 기록만 수집하든 등-이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경매자료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시급함
- 수집된 자료 중 감정평가서에 직접 인용할 수 있는 자료는 경매 가격임. 공개 거래의 특성 상 거래의 진실성과

- 가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를 비교자료로 활용 함. 그러나 경매결과라 할지라도 자료의 신뢰성은 검증되어야 함. 즉, 경매회사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해당 낙찰 자료는 직접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이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은 IRS는 중국경매 낙찰가격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임. 낙찰가격은 물론 판매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중국 경매제도가 구조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 비록 보조 자료로만 사용되지만 화랑 거래가격 또한 수집되어야 함. 특히 해당 작가와 전속계약이 있는 화랑, 또는 해당 작가 작품을 많이 판매한 화랑 등과의 접촉을 통해 가격의 동향, 수요의 변화, 공급 측면의 특이점 등을 파악해야 함. 특히 공급 측면의 특이점은 경매에서 파악이 쉽지 않은 특징으로 가격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임
 - 한편 시장 동향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감정평가사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임. 강사는 경제학자 등이 평가한 자료를 인용하라고 언급함. 유료사이트가 제공하는 미술시장동향이나 작가 작품 판매 동향을 그대로 활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함. 이는 해당 유료사이트들의 분석 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이 드물 뿐 아니라 개별 작가의 동향 분석 연구는 전문함. 따라서 자료의 수집은 물론 미술시장 분석 또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미술시장에 대한 기초 교육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과 감정평가 수수료 대비 업무 투여 시간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평가서의 질적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4) 감정평가 방법론의 이해

- 감정평가방법론은 일반적으로 ①매매사례비교접근법(시장접근법), ②비용접근법, ③소득환원접근법이 있음. 미술품의 경우(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환원접근법으로는 미술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주로 사용함
-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임. 이때 시장은 유통경로에 따라 소매/도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 특징에 따라 사적거래시장/공개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IRS는 미술품 감정에서는 공정시가가치(Fair Market Valuation)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공정시가는 입증 가능한 거래가격(주로 경매회사의 낙찰가)임. 한편 시장은 유사한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술품의 경우, 지리적 시장(예:미국시장, 유럽시장) 뿐 아니라 분야별 시장(예: 19세기 가구시장) 등도 고려해야 함. 물론 동일 시장 결과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시장 분류의 유사성을 확보해야 함
-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의 미술품 기증에서 공정시가가치 보다는 구입가격 적용 사례가 많음. 세법의 구조상 공정가치 적용 했을 경우, 납부세액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공정가치 방법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은 미술품 금융담보 설정 사례로 국한됨
- 비용접근법은 대체비용 또는 복원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함. 보험 목적으로 주로 산출됨. 대체비용은 동등한 자산을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드는 비용인데 미술품의 경우, 유일성이라는 재화적 특성 때문에 대체비용의 산정이 어려움.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에서 산출된 가치보다 높은 사례가 다수임.

5) 감정평가서 작성 실무

- 감정평가서 작성 실무 과정에서는 비교가격(comparable set)의 선정과 시장동향파악의 중요성을 다룸.
- 먼저 비교가격은 의뢰 작품과 비교할 때, 도상적 유사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장 특성 또한 유사해야 하며 효력일(effective date) 2년 이내의 자료만을 사용해야 함. 물론 효력일 이후의 자료는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 비교가격자료가 선정되면 해당 자료의 거래일과 효력일 사이의 경기변화와 시장동향을 분석해야 함. 거시적 경제 상황 변화는 물론 특정 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 또한 파악해야 함. 이를 근거로 비교가격 대비 가치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정규모를 결정함. 이때 조정 규모는 합리적 근거와 추정의 통계적 정확성을 확보해야 함.

IV. 미술품 시가감정제도의 제안 및 결론

1) 교육프로그램 제안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술품 감정평가사 운영을 위한 최소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자칫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여 감정평가사 경쟁이 심화될 경우, 시장혼탁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 높음.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의 지나친 확대는 시장 혼탁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음.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시장 자율) 선별된 숫자의 교육주체를 선정,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함. 반면 공인자격증제도로 전환될 경우는 시장 자율 교육체제로 전환하여도 무방함
- 선별된 교육 주체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미술품 시가감정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유효함. 특히 과세당국의 직·간접 개입이 적고 공인자격증 제도가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감정평가의 질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임
- 먼저 교육 주체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교육주체로는 ①대학(정규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②협회, ③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 주체별 교육의 장단점 분석은 표 6과 같음

표 6 미술품 시가감정사 교육 프로그램 주체별 장단점 비교

교육주체	대학	협회	공공기관
장점	-기존의 교육인프라가 이용가능(온/오프라인) -사회과학이나 미술사 등 필수기초학문 심화 과정 연계 가능 -시장동향 분석 등 취약 학문으로의 확장 용이 -감정평가의 중립성 확보	-실무 강사 인력 확보 용이 -기존 감정평가 인력 흡수 가능 -기존 감정평가서 데이터 활용가능 -실무와의 높은 연계성 -실제 작품을 활용한 실습	높은 신뢰성 시장중립적 교육프로그램 도입 가능 다양한 자원 활용가능(협회와 대학 인력) 다양한 계층 수강 가능 예산 확보 용이
단점	-고용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강사 인력 확보의 어려움 -실무 교육의 한계(작품을 직접 보고 진행하는 수업 불가) -기존 감정평가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기존 실무인력 활용의 한계	-시장진입 통제가 가능하여 특정협회의 지배력 강화 폐해 발생 -협회 이익과 공공 이익의 충돌 가능성 -필수 기초학문 연계 강의의 한계 -중립성에 대한 오해 유발 우려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의 어려움(조직적 유연성 부족) 심화 과정으로 확대의 어려움 기존 감정평가사와의 이해충돌 대처 문제

- 교육 주체별 장·단점을 비교할 때, 대규모 교육의 경우 대학이 가장 유리한 반면 소규모 교육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체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더 합리적임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또한 중요함. 특히 경매자료와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시장 분석 등의 분야를 교육과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장르(동양화, 서양화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강화 교육과 함께, USPAP을 대신할 실무기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표 7>은 미국 협회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임

표 7 교육프로그램의 예

	과목	내용
필수과목	시가감정개론	감정의 이해 시가감정 방법론 감정업무의 이해
	자료 조사와 분석	자료 조사 방법

		수집 자료의 분석
	미술시장의 이해	미술시장의 구조 가격의 결정 요인 지수를 활용한 시장 분석
	법률과 세법	소득세법의 이해 상속·증여세법의 이해 소유권과 도난 진위문제와 법률적 의무 계약서의 작성
	전문가 윤리규정	전문가의 신의성실의무 계약서의 작성 감정평가 위반사례
	감정평가보고서의 작성실무	업무의 범위 자료의 정리 감정평가보고서 실습 작성보고서 리뷰
선택과목	미술의 이해	장르별 미술 특성 한국미술사의 이해 당대미술의 이해
	경매의 이해	경매 용어 및 개념 경매 구조의 이해 경매와 화랑 가격 분석 데이터의 분석
	미술시장 동향	미술시장 추이 분석 시장변동요인에 대한 이해 수요와 공급의 이해
	세법과 회계	회계 기초 세법의 이해 시가/구매가 적용의 득실 상속자산의 평가
	복원과 진위	복원으로 인한 가치 변동 복원방법에 대한 이해 진위판명 및 법률적 해석

참고문헌

- 정희남 (1992). 금융개혁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7(2), 1-27.
- 정희남, 유선종, 김재환(2012) 『미국 감정평가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기반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Leet, Edmund (2001), *The history of the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ASA
- Kahn, Sanders & Smyth, William(1956), *The Appraisal and Valuation Manual*, ASA
- Orbis Research, *The US Real Estate Appraisal Market(2019-2023 Edition)*, Orbis Research, 2019.
- Appraisal Subcommittee, (2019) *Appraisal Subcommittee Annual Report 2018*, ASC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8) *The Art Advisory Panel of 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Fiscal Year 2017*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7) *The Art Advisory Panel of 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Fiscal Year 2016*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6) *The Art Advisory Panel of 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Fiscal Year 2015*
- <https://www.appraisalfoundation.org>
- https://www.appraisalfoundation.org/imis/TAF/About_Us/Appraiser_Regulatory_System/TAF/Regulatory_Structure.aspx

붙임 3. 미술품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주제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반 검토	작성자	이명선
----	--------------------------	-----	-----

1.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의 정의와 목적

미술품 시가감정에서의 미술품의 정의는 국가나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 범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크게 개인 및 기관·기업의 자산 중 동산(動産)에 포함되는 것으로 순수미술, 장식미술, 기타 수집품 등을 범위로 한다.¹⁾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미술품 시가감정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 하고 받는 것이다.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은 미술품 시가감정을 시행하는 개인, 단체나 관련된 기관, 전문가가 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학생이나 입문자 등 일반 개인이나 단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교육프로그램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은 연구 및 정립을 통한 관련 분야의 발전, 인력 양성, 해당 분야 인식 개선,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2.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현황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혹은 현재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미술품 감정가를 국가에서 자격으로 공인하지 않는다. 미술품 감정은 필요 기관의 부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 양성 또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또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관련단체, 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미술품(동산)감정 교육이 민간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미국감정가협회(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AAA)를 예로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관련 단체와 정부 등 주요 기관의 미술품 감정 교육의 개요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국외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현황 : 미국 미국감정가협회(AAA)

미국의 미국감정가협회는 1949년에 설립된 비영리 협회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회원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전담해 진행한다. 협회에 소속된 감정가는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 중 동산 평가(Personal Property Appraisal, Standard 7-8)에 근거해 미술품 시가감정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실무기준이 교육프로그램의 중심적인 내용이 된다. 부동산 외에 개인 자산 평가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을 준수해 미술품을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투표 권한이 있는 회원(Voting member)인 공인회원(Certified Member), 승인회원(Accredited Member)은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평가실무기준은 2년마다 업데이트 되므로, 감정가도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한다.

회원 구분		자격 및 교육요건	주요 교육 내용
투표권한이 있는 회원 (Voting member)	공인회원 (Certified Member)	-가장 높은 단계 회원 -최소 10년 이상의 가치평가 실무 경력 -평가실무기준 15시간, 시험 등 120 시간 교육 -3건의 샘플 보고서 제출 -2년마다 평가실무기준 코스 7, 15시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 교육

1)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간 이수 등 5년마다 70시간 연수	
	승인회원 (Accredited Member)	-5년 이상 경력 -평가실무기준 15시간, 시험 등 120시간 교육 -3건의 샘플 보고서 제출 -2년마다 평가실무기준 코스 7, 15시간 이수 등 5년마다 70시간 연수	
소속 회원 (Affiliated Member)	회원 (Associates)	-평가실무기준 15시간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CASP 이수 -시험	-
	학생회원 (Students)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CASP를 등록한 학생	
	명예회원 (Emeritus)	75세 이상 회원	
	친구회원 (Friends)	금융, 보험, 보존, 법률 등 관련 직업 종사자	

표 2 미국감정가협회 회원 구분 및 주요 교육 내용

미국감정가협회에서는 감정가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또한 각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걸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러 교육 커리큘럼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가실무기준(USPAP)이다. 평가실무기준은 크게 용어 정의, 윤리 규정, 작업 시 범위, 기록 규정, 관할권 예외 규정 등 기본 개념과 업무 수행 기준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내용인 각 분야의 평가에 대한 개발과 보고서 작성의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섹션에는 자문 의견, 질문과 답변이 정리되어 있다.

교육명	내용
USPAP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으로 미국감정가협회 회원의 필수 교육 요건
Programs On-Demand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방, 국외의 수요자들에게 웹사이트 상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Comprehensive Appraisal Studies Program (CASP)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봄, 가을 온라인 프로그램과 여름 집중과정 운영
Connoisseurship & Methodology	감정가 프로그램은 미술품, 장식미술품의 각 분야를 다루는 세미나, 강의, 현장강의로 감정가, 교육자, 학생, 컬렉터, 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방법론은 관련 직업의 보고서 작성, 실무 등 사례와 관련 주제 교육
Conferences	감정평가의 이슈 교육, 감정가와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기회 제공
Core Courses	회원을 희망하는 후보자를 위한 교육

표 3 미국감정가협회 교육프로그램 유형

평가실무기준에서는 평가 보고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제안 하지 않지만 실제 감정평가 수행과 평가보고서 작성 시에 적용되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이 중심이 된다. 각 분야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섹션(Standards and Standard Rules)에서는 평가 수행 단계에 필요한 개발을 먼저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 2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방대한 양의 자문 의견(USPAP Advisory Opinions)과 질문, 답변 섹션(USPAP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전체적으로 실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내용 구성	구분
-------	----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평가실무기준 -Foreword 서문:간행사 -Table of Contents 목차 -Preamble 서문 -Definitions 정의 -Ethics Rule 윤리 규정 -Record Keeping Rule 기록 규정 -Competency Rule 역량 규정 -Scope of Work Rule 작업 범위 규정 -Jurisdictional Exception Rule 관할권 예외 규정	개념 정의, 감정평가 수행 규정
Standards and Standard Rules 기준과 기준 규정 -Standard 1,2 Re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 Reporting 부동산 평가 개발, 보고 -Standard 3,4 Appraisal Review Development, Reporting 평가검토 개발, 보고 -Standard 5,6 Mass Appraisal Development, Reporting 대량 평가 개발, 보고 -Standard 7,8 Person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 Reporting 동산 평가 개발, 보고 -Standard 9,10 Business Appraisal Development, Reporting 비즈니스 평가 개발, 보고	각 분야 평가 수행의 개발과 보고서작성 기준 제시
USPAP Advisory Opinions 자문 의견	자문 및 질문답변을 통해 실무 적용점 제시
USPAP Frequently Asked questions 질문, 답변	

표 4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내용 구성

미국감정가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평가실무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평가실무기준에 포함된 기본 정의와 개념, 윤리 규정, 실무 지침은 곧 감정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말한다. 협회에 의해 감정의 기반이 정립되어 있고 이를 기관과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어 이 평가실무기준은 크게 미국의 미술품(동산) 평가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내 미술품 감정분야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감정가의 유입, 직무 유지, 교육이 이루어지며 또한 사회에서도 기준으로 통용되는 미국감정가협회의 평가실무기준과 같은 시스템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재교육의 시행이다. 평가실무기준이 2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갖춘 감정가들도 업데이트된 내용을 숙지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재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재교육 시스템은 예술품의 시가감정이라는 전문가 수준의 업무 영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소속된 감정가들의 수준을 유지시키고 사회적인 신뢰성을 높인다.

2) 국내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현황

미국 등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미술품 감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크게 기관, 미술관, 박물관, 감정회사, 경매사 등이다. 이 중 기관, 미술관, 박물관, 경매사는 운영에 필요한 하나의 업무로 다루어지며, 미술품감정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은 감정 업체이다.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위의 단체·기관에 교육기관을 더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중 교육해 온 사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감정 관련 단체나 기관의 교육은 진위와 시가 평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국내의 현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도 시가감정에 단독으로 집중하기보다 미술품 감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으로 미술품감정 분야에 주목해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품 감정 교육 지원을 예로 들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006년경부터 관련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 미국감정가협회, 소더비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등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해 왔다.

3.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반 검토

1)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분야의 협력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각 기관이 단독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분야마다 성격과 장점이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중 중요한 사항은 교육의 지속성이다. 입문단계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교육하거나, 감정가의 수준을 일정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특성상 중요한 사항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르는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지속적인 교육은 관련 기관의 협력이나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이론과 실무 현장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시장 모두에 숙련되어야 하는 분야의 특성 상 교육과 현장이 긴밀히 연관되어 시가감정 예비 인력이 실제 사례를 접하고 차후 시가감정 현장에 투입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예비 인력을 제공하고 모집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한다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감정 단체, 경매사,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전문가, 교육기관,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정부기관은 관련 정책과 지원의 역할을 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나머지 단체와 기관들은 교육프로그램의 주체이지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이자, 연구의 산실로 감정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 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

구 분	감정 관련 단체 감정회사 감정평가사	관련 분야(영리) 경매사 등	관련분야(기관비영리)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전문가, 연구자	교육기관 대학교 대학원 산하 연구기관	정부기관 문화재청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역 할	교육, 인력 유입, 연구				지원
	감정 평가 교육:인력양성 협력 연구		아카이브 가치평가 연구(과학분석)	교육:인력양성 협력 연구	관련 정책 및 지원

표 5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 주체(대상)와 역할

2)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 관련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① 기초 입문 단계의 협력

기본 개념 정립으로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 인식 향상 및 인력 유입의 통로가 된다. 대상은 대학생, 일반인, 법률·금융·보험·세금 관련 종사자 등 광범위하다. 미술 일반 지식, 미술품 시가감정의 정의, 방법론 등 분야의 기본을 정리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감정 관련 단체,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이론과 미술품시가감정 현장을 연계하고 학생,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단기간 구성한다.

② 감정가 훈련 단계의 협력

미술품 시가감정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미술품 시가감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근접한 실습을 진행 한다. 계속적인 심화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역량과 연관된 전문 분야를 개발한다. 전문 분야의 개발은 개인의 전문·전공 분야에서 출발해 미술 장르나 미술 작가를 심화 연구하여 감정 대상의 전문화를 이루는 것과, 평가

대상, 의뢰대상, 평가 방법론 등 주로 실행해야 될 시가감정의 범위에서 특화된 전문화를 이루는 것 두 가지를 말한다. 감정 관련 단체와 각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전문가 소수를 대상으로 실습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재교육을 지속하며 집중 양성한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실제 시가감정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 미술품 시가감정 현장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구분	입문 단계	감정가 양성 단계	교육 주체 (협력기관)
공통 교육 내용	시가감정의 정의 및 방법론 직업 윤리, 법률적 문제 금융 및 세법 : 보험, 세금 미술 일반 : 미술사, 작가 및 작품 연구, 복원, 과학분석 등 미술 시장(유통) : 갤러리, 경매, 아트페어 등 현장 시가감정 이론 시가감정 사례 연구 시가감정 보고서 작성 및 실습		감정단체, 관련단체, 교육기관, 정부기관
기간	단기 : 2개월~6개월	장기 : 연 단위	-
재교육 여부	일회성	재교육	
대상	다수 일반 : 대학(원), 미술계종사자, 법률·금융·보험·세무분야 종사자	소수 전문가 : 미술 및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인, 미술품시가감정 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의 비중	이론 중심	실습 및 현장 교육 중심	
교육 방향 및 목적	기초 개념 정의	-심화 연구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 분야 개발	협력 연구 진행
결과	-미술품 시가감정 예비인력 양성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 홍보, 인식 향상	미술품 시가감정가 양성	

표 6 미술품시가감정 교육 운영 내용

3)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의 선행 단계 고찰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을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해서 진행하려면 먼저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의 기반 정립이 필요하다. 각 기관이 마찰 없이 협력할 수 있으려면 미술시장 뿐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표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기반 위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연구와 운영이 진행 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교육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의 기반 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미술품감정 관련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기반 정립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처럼 각 분야에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각 분야가 협력하여 연구·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출 것이다.

4.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프로그램의 전망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은 관심과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며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수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전에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미술품 감정 분야는 기준, 규제와 보호 등 기초적인 기반이 정립·통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단계를 짚어 보았을 때 감정 분야의 발전과 다양화, 세부적인 전문화가 가능할 것이며 인력 유입과 양성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감정 분야는 미술 시장과 사회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품 감정 분야도 국내 미술 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인들의 연구와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관련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편으로 미술품 시가감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진행되고 있으나, 실행의 단계에서 고민 되는 점이 있다. 이런 시도가 실행 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번 미국감정가협회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기관의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를 위해 인력 양성, 기반 연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미술품 감정 분야는 체계적인 변화의 요구에 맞닿아 있으며 경제 및 금융 시장 트렌드, 미술 시장에 따라 다양화 될 조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미술품 시가감정의 지침을 논의하고 제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이후에 보다 공개적인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의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고 기관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술품 시가감정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경쟁력과 선진화의 한 가지 조건이 될 것이다. 본 미국감정가협회 협력 프로그램 참여에서 비중 있게 다룬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USPAP)과 같은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국내의 미술품 감정 분야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여러 방안과 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